

여성 망자(亡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기록,
그 차이와 층위*
-의유당의 <숙부인이씨행록>과 <숙부인이씨유사>
및 박윤원의 <숙부인연안이씨애사>를 검토함-

류준경**

1. 들어가며
2. <이딜부숙부인니시행록>의 창작배경 및 특징
3. 박윤원의 <淑夫人延安李氏哀辭>의 특징과 <숙부인이씨행록>과의 거리
4. 또 다른 여성 기록, <유스>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의유당 남씨가 이질부인 연안 이씨에 대해 작성한 한글행록과 유사 및 이를 바탕으로 사대부 남성이 작성한 추도문자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여성의 한글 행록과 그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대부의 추도문자에 대한 최초의 사례이기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하였고, 나아가 각 작품의 창작 배경과 차이 및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딜부숙부인연안니시행록>은 작자인 의유당은 문학적 능력과 둘 사이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겹으로 얽힌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해 시이모임에도 행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의유당은 연안이씨를 이상적이고 규범적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여인으로 형상화하여, 부녀자에게 요구되는 규범의 맥락에서 삶을 정리하였다. 여성에 대한 여성의 한글 행록이지만 여성만의 독특한 시각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이 글을 바탕으로 작성된 박운원의 <연안이씨숙부인에사>에서는 행록에 제시된 일화를 변개하여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여중군자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원래의 일화에서 강조된 어른에 대한 배려, 검소와 절약 등의 도덕적 절목을 잘 실천한 인물로부터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마음을 지닌 군자적 이미지를 읽어내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중군자인 연안이씨 그 자체를 현창하였다기보다는 부귀가의 자제임에도 과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학문연구에만 매진하는 아들 김종선의 행위의 근원으로서 연안 이씨를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학문연구에 매진하기를 권면하기 위해 사용된 인물 형상이었다. 곧 교자(敎子)의 측면에서 발견된 여중군자의 형상이었던 것이다.

의유당은 연안 이씨를 기리기 위해 행록 외에 <유사>도 작성하였다. 앞서 작성한 행록은 모두에게 기억되기 위하여 규범적인 모습을 형상화하였지만, <유사>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억과 심사를 기록하였다. 이 <유사>는 <행록>과 다른, 여성의 여성에 대한 기록의 또 다른 층위를 보이는 것으로, 여성들 간의 감정적 유대와 지기(知己) 욕망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는 비록 한 사례에 대한 검토이지만, 현재로서는 망자인 여성에 대한 여성의 한글 기록과 이를 바탕으로 한문으로 작성된 남성의 추도문자를 동시에 확인하는 유일한 사례이기에, 남성의 관점의 차이 및 여성 기록의 층위를 확인하는 한 가지 사례 이상의 의미를 띠다고 할 것이다.

핵심어: 의유당, 의유당유고, 여성문학, 한글 행록, 한글 유사, 박운원

1. 들어가며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된 조선시대의 사회 제도에서 여성의 영역은 상당히 제약되었다. 생활공간뿐 아니라 교육과 문자의 사용도 제약이

켰기에, 여성의 글쓰기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사대부가의 여성의 경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교육과 독서가 권장되어 내밀하게 여성들의 문자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8세기에 들면 여러 여성작가들이 다양한 글쓰기를 보인다. 호연재 김씨(1681~1722)의 『호연재유고』, 윤지당 임씨(1721~1793)의 『윤지당고』, 의유당 남씨(1727~1823?)의 『의유당유고』 등에는 한시와 의론문, 유기문 등 한문으로 창작된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고, 병허각 이씨(1759~1824)의 『규합총서』, 풍양 조씨(1772~1815)의 <자기록>, 안동 권씨(1718~1789)의 <절명사> 등은 한글로 저술된 대표적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단지 몇몇 작품들로 한정될 뿐, 조선후기에 들어서 다채롭게 나타나는 남성들의 작품들에 비해서 여성의 작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문학작품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의미를 확인하고 보전하였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비록 제한된 영역이었지만, 그들의 문자인 ‘언문[암글]’을 통해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비록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한글 행록이나 유사(遺事)를 작성한 예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¹⁾ 다음의 자료를 보자.

① 할머니의 병이 더욱 깊어지자 막내 누이인 윤실(尹室)을 보며 말씀하셨다. “감실에 작은 상자가 있으니 마땅히 조심스럽게 보관하여 잃지 말도록 하여라.” 급기야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누이들이 가져다 열어보니 작은 두 장의 종이가 있었다. 하나는 집안일 처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정 어머니인 이부인의 유사(遺事) 몇 조목을 손수 작성하신 것이었다.²⁾

② 담양공(潭陽公)이 유인(孺人)의 행장을 짓고자 하였으나 병으로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안씨(安氏) 집안에 시집 간 딸이 언문 행록 한 통에 그 사적과 행실을 담고, 열행(烈行)이 나에게 행장을 부탁하였다. 나는 외람되게도 유인의 사위

1)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18~25면.

2) 先祖妣病既革, 顧季妹尹氏婦曰: “吾有小箱在壁龕中, 宜謹藏而毋失.” 及先祖妣棄世, 慈堂與諸妹取而閱之, 中有二小紙. 其一則區處家事者, 其一則乃手錄李夫人遺事數三條也. (<先妣行錄>, 『西堂私載』 卷之十二)

가 되니 (...)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게다가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있다. 신축년(1781) 아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안씨 집안에 시집간 딸이 그 행록을 아내에게 보이면서 더하고 뺄 곳을 물었다. 아내는 숨결이 실 날 같았으나 눈을 뜨고 살펴보고 마침내 한두 가지 말을 보충할 것을 부탁하였다. 마침 열행이 곁에 있어서 나를 지목하면서 “이것을 편찬하는 것은 매형에게 달려 있어요.”라고 하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³⁾

①은 서당(西堂) 이덕수(李德壽)의 <선비행록(先妣行錄)>의 일부분이다. 실제 이 글은 아들인 이산배(李山培)가 지은 것인데, 이산배가 요절하여 이덕수가 자신의 문집에 <선비행록>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이덕수의 어머니인 청송 심씨(1649~1727)가 마지막에 며느리와 손녀들에게 글을 남겨 당부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집안의 일처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친정어머니 이부인(李夫人)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 중 친정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주목을 요한다. 이 ‘유사(遺事)’는 시집인 이덕수 가문의 여인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녀딸인 윤씨부(尹氏婦)에게 진외증조모가 되는 한산 이씨(韓山李氏)에 대한 기억을 부탁하는 것은 단순히 시집인 전의 이씨가(全義李氏家) 중심의 여성에 대한 기억이라기보다는 모계로 연계되는 여성들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가문의식의 맥락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어머니의 존재가 여성들 사이에 민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록 사대부가 남자의 한문 기록 속에서만 확인될 뿐이지만, 여성이 한글로 ‘유사’를 쓰고, 가까운 여성들에게 이를 부탁하는 모습에서 여성들이 여성을 한글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의 경우에도 한글로 여성에 대한 여성의 기록을 남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는 근재(近齋) 박윤원(朴胤源)이 작성한 그의 장모인 남양 홍씨의 행장의 일부분이다. 남양 홍씨의 장남인 담양공 김철행(金喆行)이 행장

3) 潭陽公欲爲孺人狀，有疾不果成而歿。安氏婦以諺錄一通，載其事迹，烈行屬胤源爲狀。胤源忝爲孺人女婿，蒙被眷愛者三十年，且以粗解文字，猥辱知嘆，義何敢辭？抑又私有所感者，當辛丑吾妻之將死也，安氏婦以其錄示吾妻，問其增刪。吾妻方氣息如絲髮，而能閉目閱視，遂請添補一二語。時烈行在傍，指余曰：“撰此者姊兄在。”吾妻頷之。（〈外姑孺人南陽洪氏行狀〉，『근재집』 권30）

을 지어야했지만 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둘째 딸인 안종인(安宗仁)의 처 [安氏婦]가 행록을 작성하고, 다시 죽음에 임박한 자신[박윤원]의 처가 몇 가지 침착한 것을 바탕으로 행장을 찬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몸져누운 동생을 찾아와 어머니의 행록 검토를 부탁하는 언니나 목숨이 실날같은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기록 한 두 군데 보충하기를 요구하는 동생의 모습에서 딸이 어머니를, 여성이 여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인 영역의 삶이 허락되지 않은 여성이, 자신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송 심씨가 쓴 ‘유사’와 남양 홍씨의 둘째 따님이 쓴 ‘행록’은 전하지 않는다.⁴⁾ 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기록은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성에 의한 여성의 한글 행록과 유사 자료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 대부분의 한글 행록(장)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 비하여 이는 여성이 직접 한글로 여성에 대해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⁵⁾ 바로 <동명일기>의 작자인 의유당이 남긴, 자신의 이질부에 대한 기록인 <이딜부숙부인연안니시행록>과 <유스>가 바로 그것이다.⁶⁾ 지금까지 남성의 한문 문집을 통해서 그 흔적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여성의 여성에 대한 행록과 유사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의유당의 <숙부인이씨행록>과 함께 남윤원의 <숙부인연안이씨애사(淑夫人延安李氏哀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윤원의 <숙부인연안

4) 다행히 청송 심씨가 쓴 <遺事>는 이덕수가 한문으로 번역하여 자신의 문집에 수록하였고 (<先妣墓誌>에 부기되어 있다), 진의 이씨[安氏婦]가 쓴 행록은 박윤원의 행장의 바탕이 되었기에, 행장을 통해 개략적이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원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에 여성의 한글 기록에서 주목했던 부분이나 한글 기록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5)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한글 행록, 행장은 한문으로 작성된 행장을 번역한 것이다. 다만 속종의 계비인 인원왕후가 지은 <선비유스>는 한문 번역이 아닌 한글로 작성된 보기 드문 예이다. 아마도 왕실의 기록이었기에 전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이딜부숙부인연안니시행록>과 <유스> 역시 왕실의 기록으로 판단된다. 이 자료는 『의유당유고』에 실려 있는데, 『의유당유고』가 왕실자료임에 대해서는 류준경, 『의유당유고』의 형성배경과 문학적 가치, 『한국한문학회』61, 한국한문학회, 2016, 82~88면 참조. 인원왕후의 <선비유스>에 대해서는 정하영, 『속종 계비 인원왕후의 한글 기록 : <선군유스>와 <선비유스>』, 『한국문화연구』1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277~315면 참조.

6) 이하 <이딜부숙부인연안니시행록>은 <숙부인이씨행록>으로 약칭하고, <유스>도 <유사>로 표기토록 한다.

이씨애사>는 바로 의유당의 <숙부인이씨행록>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의 한글 행록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남성의 한문산문 자료가 함께 확인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이 유일한 자료이다. 여성이 여성을 기록하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를 바탕으로 작성된 남성의 추모문자를 비교함으로써 남성의 한문산문과 여성의 한글 행록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문학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한글과 한문 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유당은 연안 이씨에 대한 행록을 작성한 다음, 이어 연안 이씨의 ‘유사’도 작성하였다. 왜 의유당은 굳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식인 ‘행록’과 ‘유사’라는 두 글을 작성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글 행록과 유사로 두 양식으로 생애를 기록한 이유, 나아가 남성의 한문 산문과의 차이 등을 두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를 모두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여성의 여성에 대한 한글 행록인 <숙부인이씨행록> 및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박윤원의 <숙부인연안이씨애사>을 검토하여 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의유당의 또 다른 글인 연안 이씨에 대한 유사를 검토하여 각 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모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여성문학, 특히 여성어문생활 관련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료를 다루고 있기에, 기본 자료인 <숙부인이씨행록>과 <유사>의 원문을 주석 작업을 더하여 부기토록 하겠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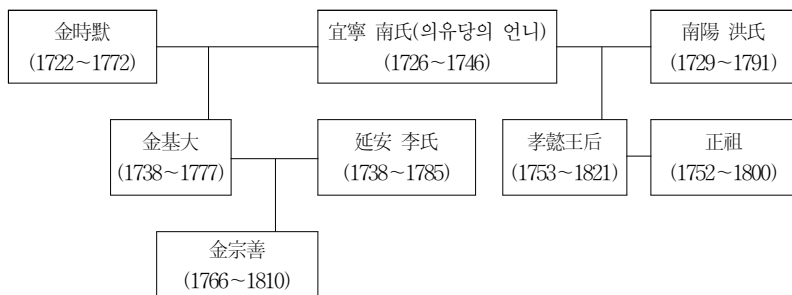
2. <이달부숙부인니시행록>의 창작배경 및 특징

<이달부숙부인니시행록>은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작자인 의유당이 작성한 것으로, 의유당의 또 다른 작품집이 『의유당유고』에 실려 있다. 분량은 2,300여자로 원고지 약 12장 정도이며 유려한 궁체로 필사되어 있다.

행록의 대상자인 숙부인 이씨(1738~1785)는 李長源의 딸로, 남편은 청원

7) <이달부숙부인니시행록>과 <유사>의 원문과 주석은 본 논문 뒤에 첨부하도록 할 것이다.

부원군 김시묵(金時默, 1722~1772)의 아들인 김기대(金基大, 1738~1777)이다. 김기대의 생모(生母)가 바로 의유당의 언니이기에 의유당과는 시이모와 이질부의 관계가 된다. 김기대는 정조비인 효의왕후(1753~1821)의 오빠이다. 다만 효의왕후는 김시묵의 계비(繼配)인 남양 홍씨 소생이어서 생모는 다르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가계도로 보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1 : 연안 이씨 시집 가계도>

<숙부인이씨행록>이 『의유당유고』에 실리게 된 것은 효의왕후와의 관계 때문이다. 『의유당유고』는 효의왕후와의 관련 속에서 왕실에서 편찬된 서적으로,⁸⁾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은 한시문(漢詩文)이다.⁹⁾ 주로 의유당이 1797년 1년 동안 왕실과 가까운 삼청동에 머물면서 왕실, 특히 효의왕후의 지우(知遇)를 입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숙부인이씨행록>은 한시문들보다 12년 전인 1785년에 작성된 것이지만, 의유당의 한시문들 뒤에 첨부되었다. 효의왕후의 친정 올케에 대한 행록이기에 한시문 뒤에 부록의 성격으로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곧, <숙부인이씨행록>은 왕실과의 관련으로 인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의유당이 이질부인 연안 이씨의 행록을 작성한 것은 연안 이씨의 아들인 김종선의 부탁 때문이었다.¹⁰⁾ 어머니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이모할머니인

8) 류준경, 앞의 논문 참조.

9) 한시문들이기는 하지만 한문으로 표기된 것은 아니다. 먼저 한글로 音寫하고, 번역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10) 부인의 아들이 일족 남시의게 부인의 덕을 녀겨메오고져 청하니 (<이달부숙부인니시행록>)

의유당에게 어머니의 행록을 부탁한 것이다. 그런데 시이모가 이질부의 행록을 작성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 아들인 김종선이 직접 ‘선비행록(先妣行錄)’을 작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어려웠다면 자신의 누이, 할머니 등에게 부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인용한 자료에서 보듯이 행장, 묘지명 등 망자를 기억하고 기리는 글들의 초안이 되었던 여성들의 한글 행록, 한글 유사 등은 대부분 망자의 딸이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의유당이 연안 이씨의 행록을 작성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을 먼저 살펴보자. 연안 이씨가 돌아갔을 때, 김종선의 나이는 20세였다. 비록 조금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이미 당시 큰 학자였던 박윤원으로부터 과거보다는 학문에 힘쓴다고 상찬 받을 정도였기에¹¹⁾ 그의 문학적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나이도 조금 어린데다 집을 떠나 바깥 스승[外傳]에게 가서 수학케 하였으니¹²⁾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적어 직접 행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23세이었던 3살 위의 누이가 있었고, 할머니도 생존해 있었기에 이들에게 한글 행록 작성을 부탁하거나 혹은 이들의 전문을 바탕으로 자신이 행록이나 유사를 작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이모인 의유당이 행록을 작성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종선에게 어머니 연안 이씨는 각별한 존재였다. 다음은 근재 박윤원의 말이다.

김성보(金城甫, 城甫는 金宗善의 字)는 자질이 매우 뛰어나다. 혁혁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사치스런 습속이 없었다. 듣기에 그 어머니가 현명하였고, 그가 학문에 힘쓴 것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¹³⁾

11) 城甫日夜讀<大學>家禮書, 不屑屑爲科學業. (…)
城甫將進而未己者也, 吾知其學成有日.
(<淑夫人延安李氏哀辭>, 『近齋集』卷28)

12) 그 아들이 다만 하나하니 사랑하고 귀중(貴重)히 띠는(天倫) 맞고 타별(他別)을 거시로 더 끈히 밧스심[外傳]에게 보내고 집의 용납(容納)디 아나 (<이달부숙부인니시행록>)

13) 曰: “金城甫姿稟甚好, 生於恒孀, 又早孤而無綺紈驕侈習. 吾聞其母賢母也, 其向學, 亦承慈教云.” (<先考近齋先生府君言行錄>, 『冷泉遺稿』卷5)

잠영귀족(簪纓貴族)인 김종선이 과거보다는 학문에 힘썼던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라는 박윤원의 전언이다. 이로 보건대, 김종선에게 어머니는 바른 길을 인도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였고, 아마도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고 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시이모 의유당에게 부탁하는 것은 의유당이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가장 잘 그려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김종선이 특별히 의유당에게 행록의 작성 부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략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의유당의 뛰어난 문학적 능력. 행록을 작성할 당시 의유당의 나이는 58세로 이미 10여년 전에 『관북유람일기』를 지었다. 연안 이씨와 의유당은 상당히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의유당의 문예적 능력이 연안 이씨를 통하여 김종선에게까지 알려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관북유람일기』의 <춘일소흥>, <영명사백월루상량문> 등은 직접 한문을 번역한 것이고, 10여년 뒤의 작품이긴 하지만 『의유당유고』에서는 한시, 한문산문 등을 직접 창작하는 면모까지 보인다. 이러한 의유당이기에 그의 문예적 역량은 가까운 부녀자들 사이에 충분히 알려졌을 것이다. 따라서 김종선은 다른 부녀자가 아닌, 의유당에게 어머니의 기록을 부탁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의유당과 연안 이씨의 각별했던 관계. 의유당과 연안 이씨는 비록 시이모와 이질부라는 조금은 먼 관계이고, 나이도 11살이나 차이 났지만,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했던 지기(知己) 같은 사이였다. 연안 이씨의 시외조모인 여부인(呂夫人, 1692~1755)이 생존해 있을 때, 연안 이씨는 시외가에 와서 여러 날을 머문 경우가 많았고, 의유당 역시 친정 나들이로 인해 둘이 함께 지낸 시간도 꽤 있었다.¹⁴⁾ 이렇게 서로 모이면서 둘은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네 지식(知識)이 천단(淺短)하야 비록 사름 알기의 부족(不足)하나 부인(夫人)의 단숙(端肅)한 덕(德)과 효순(孝順)한 형실(行實)을 네 일즉 친인(親愛)하고 심복(心服)하야 홍상(恒常) 승우(勝友)로써 보고 부인(夫人)이 날 섬기미 또한 우리 형

14) 선비(先妣) 녀부인(呂夫人)이 오형(吾兄)을 곡(哭)하시므로 거의 상명(喪命)의 니르러 거시더니 밋 덜부(姪婦)를 어드시매 흡연(治然)이 비회(悲懷)를 위로(慰勞)하야 조로(紫霞洞) 본집의 마자 일위시고 가면 문득 여러 날 머므르실시 니 귀령(歸寧)한 썩에 시러곰 부인(夫人)으로 더브러 조용이 모히는 썩 만흔디라. (<遺事>)

(兄) 섬기미여셔 다르미 업스니 너 믿음의 심(甚)히 감격(感激)호고 깃버 심복(心服)으로써 탁(托)호디라. 그러므로 일언반소(一言半辭)를 너게 괴이미 업서 일을 쓰라 상확(相確)호야 즈금도 애이호미 업스니 그 정의(情誼) 도타오미 엇디 네 니른 바 지기(知己)여셔 다르리오.

이는 의유당이 <유스(遺事)>에서 연안 이씨에 대해 이룬 말이다. 연안 이씨가 뛰어난 덕을 지녔기에 자신보다 나은 벗(勝友)로 이해하였고, 연안 이씨 역시 시이모를 어머니 섬기듯이 정성을 다하였다. 이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며 정의가 두터워 지기(知己)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연안 이씨가 죽기 한 달 전, 의유당의 방문을 간청한 것도 이런 관계였기 때문이었다.¹⁵⁾ 아마도 아들 김종선 역시 연안 이씨와 의유당의 친밀한 관계를 알았기에 의유당에게 어머니의 행록을 부탁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친인척관계. 연안 이씨와 의유당은 시이모와 이질부 사이이지만, 또 다른 인척이기도 하다. 연안 이씨의 이모부인 남혁관(南赫寬, 1701~1790)은 바로 의유당의 당숙, 곧 의유당의 아버지[南直寬, 1692~1761]의 종제(從弟)이다. 따라서 연안 이씨에게 시외가는 이모의 시택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였기에 특별히 시외가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특히 시외조모인 여부인이나 시이모인 의유당과는 일반적인 관계 이상으로 돈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겹쳐진 인연이 있었기에 김종선이 의유당에게 특별히 어머니의 행록을 부탁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유당이 <숙부인이씨행록>을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의유당의 문학적 능력과 연안 이씨와 의유당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특별한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해, 시이모임에도 특별히 이질부의 행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행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유당이 작성한 행록의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행록의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잇다감 군(君)의게 나아가 본즉 환열(歡悅)호 괴식(氣色)이 면모(面貌)의 넘찌고 동(洞) "촉(燭)"호 정성(精誠)이 식스(色辭)의 나타나더니 금년(今年) 삼월(三月)의 부인(夫人)이 곤청(懇請)호니 너 가 본즉 형식(形色)이 초고(焦枯)호야(…) (<遺事>)

- ① 13세에 시집와서 존고(尊姑) 홍부인(洪夫人)을 효성으로 섬김.
- ② 시외가에 가서 시외조모를 잘 봉양하고, 선존고(先尊姑) 남부인(南夫人)의 제사에 정성을 다함.
- ③ 공명과 사치에 연연하지 않는 인물됨이 드러나는 두 일화 소개.
 - 일화1 : 남편이 17세에 사마시에 급제하나, 동방(同榜)한 외숙(外叔)이 떨어지니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애달과 함
 - 일화2 : 입궐할 때 다른 부인들과 달리 낡은 옷을 입고 가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음
- ④ 아픈 몸으로도 며느리의 일에 정성을 다했고, 특히 시외조부모 기세 후에도 직접 참사(參祀)하여 정성을 다했으나 남편이 죽자 참사치 못하고 제물(祭物)만 보냄.
- ⑤ 하나 뿐인 아들 교육에 엄격하였음.
- ⑥ 뛰어난 학식을 갖추었으나 드러내지 않았음.
- ⑦ 시이모 남씨와 각별한 사이였음.
- ⑧ 부인의 아들의 청으로 이 글을 지음.
- ⑨ 모두가 슬퍼한 죽음 및 자손 소개.
- ⑩ 마무리 : 집이 달라 대강만 기록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 (乙巳 六月 夫姨母 南氏 訃)

이상의 개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연안 이씨의 삶을 행적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각 내용을 적절히 분배하여 글의 짜임새를 더하고 있다. 시어머니에게 효성스러운 면모를 먼저 기술하고(①), 이어 시외조모에 정성을 다한 모습을 기술한 다음(②), 두 가지의 일화를 제시하여 연안 이씨의 인물됨을 부각하고(③), 며느리로서 일상적인 살림살이를 간략히 서술한 다음, 남편 사후에도 외가에 정성을 다한 면모를 기술하였다.(④) 이어 자녀에 대한 기술에서 아들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⑤) ⑥~⑧의 기술을 통해 뛰어난 학식을 갖춘 부녀자로, 의유당 자신과 각별한 사이였기에 아들이 자신에게 행록의 작성을 부탁한 것임을 은연중에 드러나도록 내용을 배열하였다. 이어 죽음에 대한 주위 사람의 태도와 자신 글의 한계를 서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였다.(⑨~⑩) 본가[시댁]의 일, 시외가의 일, 두 가지 일화, 시외가의 일, 자녀교육, 자신과의 관계 및 행록 작성 동기, 죽음과 마무리로 순으로 정리하여 시외가의 일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서 연안 이씨의 인물됨이 부각되는 구성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방식을 선택한 것은 연안 이씨의 일생을 담은 행록을 기술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시외가에 정성을 다한 몇 가지 행적만이 부각될 경우, 몇 가지 독특한 사례만이 제시되는 ‘유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택은 물론이거니와 시외가에까지 정성을 다한 연안 이씨의 모습을 부각하여, 그녀의 평소 행적이 전반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시외가에서의 행적을 서술하기에 앞서 항상 본가에서의 행적이 간략하게라도 기술되는 특징에서도 확인된다. 단락 ②에서 시외가 관련 진술이 나오기에 앞서 ①에서 먼저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음을 밝히고 있고, 단락 ④의 경우도, 시외조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생시(生時)에나 기세(棄世) 후에나 한결같았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지만, 이에 대한 기술에 앞서 아픈 몸으로도 시택 웃어른의 음식을 몸소 간검(看檢)하며 게으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략하나마 언급하고 있다.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일을 모두 수행하면서 동시에 시외가까지 정성을 다한 면모가 부각되도록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구성방식과 기술방식을 통해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치우침 없이 부덕을 실천한 면모가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유당은 행록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傳聞)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사실 의유당은 시이모이기에 연안 이씨와 일상생활을 함께 한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록 기술은 사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첫째 단락의 마지막에 고부(姑婦) 사이가 매우 좋아서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좋은 말이 널리 전한다고 언급하고¹⁶⁾, 두 번째 단락의 시외가에서 확인된 행실에 대해서는 친정 어머니인 여부인의 전언임을 언급하여 사실의 기록임을 부각하고 있다. 적절한 전문을 활용하여 사실성을 부각한 것이다.

이처럼 의유당이 김씨 문중의 며느리였던 연안 이씨의 삶의 행적을 전체를 그려내는 행록을 작성하는 가운데 부각하고자 한 것은 남편의 생모가 돌아가고 없음에도 외가에까지 정성을 다했던 점, 공명과 사치에 연연하지

16) 고식(姑息)의 흠연(愼然) 흥미 일가(一家) 제족(諸族)과 난리친구지간(隣里親舊之間)에 착한 말이 먼니 뉘(傳) 허더라. (<이달부숙부인니시행록>)

않았던 점, 그리고 자식 교육에 엄격하였다는 점이였다. 조용하고 유순하면 서도 부귀와 공명에 연연해 않고, 나아가 일찍 아버지를 여윈 외아들의 교육에 엄정했던 연안 이씨의 면모를 부각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시이모이기에 많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연안 이씨의 일생을 정리하여야 하였기에, 사실성을 부각하며 동시에 연안 이씨의 부덕(婦德)을 온전히 드러내기 선택한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의유당의 <숙부인이씨행록>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유당은 시이모임에도 연안 이씨와 가까웠고, 가끔은 서로 만나볼 수도 있었기에 행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공간이 다른 시이모이기에, 상대적으로 연안 이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의유당은 부녀자로서의 덕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화를 선택하고, 단락 구성과 서술 순서 등도 고려하여, 지극한 효성을 지니고, 부귀와 공명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과부였지만 외아들에게 엄격했던, 규범적 여인으로 연안 이씨를 그려내었던 것이다.

3. 박윤원의 <淑夫人延安李氏哀辭>의 특징과 <숙부인이씨행록>과의 거리

의유당의 <숙부인연안이씨행록>은 연안 이씨의 아들인 김종선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김종선의 스승이었던 근재 박윤원이 작성한 연안 이씨에 대한 추모의 글이 전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무엇보다 의유당의 행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이다.

근재 박윤원은 몹시 가난하였지만 평생 과거도 보지 않고, 벼슬길마저 사양하며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힘을 쓴 산림학자였다. 이에 비해 김종선은 청원부원군 김시묵(金時默)의 손자로서 상당히 부유하였다. 부귀와 권세를 모두 가진 집안의 장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종선은 과거를 통해 입신하기보다는 오로지 학문에 뜻을 두고 박윤원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고, 박윤원은 그러한 김종선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종선이 어머니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박윤원에게 뇌사(誄辭)를 부탁하자, 박윤원은 애사(哀辭)

를 짓는다.

부인이 기세하여 내가 성보(김중선)를 문상하니, 성보가 곡을 하고 절하며 말하였다.

“세월이 머물지 않으니 장차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뇌사(誄辭)를 지어주십시오.”

내(박윤원-필자주)가 슬퍼하며 허락하였다. 장사 때에 성보가 부인의 시이모인 신씨부(夫人夫姨母申氏婦)가 지은 행록을 나에게 보여주어, 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¹⁷⁾

이는 박윤원이 연안 이씨의 애사를 짓게 되는 동기를 서술한 부분이다. 박윤원은 “부인의 시이모인 신씨부”의 행록을 보고 이부인[연안 이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시이모 신씨부”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자.

청풍 김씨 족보에 의하면, 김기대의 어머니, 곧 연안 이씨의 시어머니는 의령 남씨로 남직관(南直寬)의 따님이다.¹⁸⁾ 다시 의령 남씨 족보에서 남직관을 찾아보면, 남직관에게는 세 명의 따님이 있었는데, 각각 이명집(李命楫)의 처, 김시묵(金時默)의 처, 신대손(申大孫)의 처라고 하였다.¹⁹⁾ 김시묵이 바로 연안 이씨의 시아버지가 되니, 연안 이씨의 시이모인 신씨부는 바로 신대손의 처를 말한다.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작자 의유당 의령 남씨가 신대손의 아내이니, 박윤원이 말한 “신씨부”는 바로 의유당이 된다. 이상의 사실은 의유당 행록의 내용과 박윤원 애사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의유당의 행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박윤원의 애사는 행록과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이제 박윤원이 작성한 애사를 의유당이 작성한 한글 행록과 비교, 검토하여 이 점을 확인해보자.

박윤원의 애사는 내용상 네 단락으로 나뉜다. 첫 단락에서 창작배경을 밝히고, 두 번째 부분에서 연안 이씨의 행적과 덕성을 서술하고, 세 번째

17) 上之九年乙巳四月，夫人卒。余弔城甫，城甫哭而拜且言曰：“日月不居，將葬矣。願子之誄之也。”余悲而諾。臨葬，城甫以夫人夫姨母申氏婦所爲行錄示余，余於是得其懿德之詳。(〈숙부인연안 이씨애사〉)

18) 『淸風金氏世譜』(丁編下四)권14 3葉.

19) 『宜寧南氏族譜(忠簡公派)』 권5, 27~8葉.

부분에서는 부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운문으로 작성된 사(辭)이다. 이중 의유당의 행록이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연안 이씨의 행적과 덕성을 서술한 부분이다.

글의 첫 부분에서 박윤원은 애사의 창작배경을 밝혔다. 박윤원은 그의 제자인 김종선이 일찍 아버지를 여윈 부잣집 도령임에도 어려서 학문에 뜻을 두고 독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훌륭하게 여겼다. 그런 훌륭한 모습은 분명 어진 어머니의 가르침으로부터 왔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그러다, 김종선이 모친상을 당하여 박윤원에게 어머니의 뇌사를 부탁하며 의유당의 행록을 전해주었다. 박윤원은 행록을 통해 연안 이씨의 아름다운 덕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애사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첫 부분은 전체 글의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아버지가 없는 부유한 자제임에도 엄정한 행동을 한 아들을 통하여 은근히 그 어머니의 존재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 박윤원은 행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안 이씨의 덕행을 언급한다. 처음에는 규범적인 언급이 이어질 뿐이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 엄정한 모습으로 자랐고, 큰 집안으로 시집와 집안 어른, 제사, 남편, 친척, 비복(婢僕) 등에게 정성과 의무를 다했으며, 비복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학식도 뛰어났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서술은 의유당의 행록의 서술방식이나 내용과 조금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²¹⁾ 규범적인 덕성을 언급하는 방식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박윤원이 의유당의 행록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궁궐에서의 일화와 남편의 과거 관련 일화였다. 구체적으로 행적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일화에 대한 자신의 감동과 평가를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 부인은 왕실의 인척으로 일찍이 궁중에 드나들었는데, 함께 들어간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화려한 복장을 하였으나 부인은 낡은 옷을 입고 그 사이에 있으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② 참의공(參議公, 김기대를 말함)이 열일

20) 鍾毓名門，自幼端莊和淑，及歸大家，益秉心恭謹。孝于尊章，愨于祭祀，順于夫子，睦于族黨，惠于婢僕，婦德無一不備。又博通書史，有高識，然謙虛若無所能者。

21) 의유당의 행록에서 명문가 생장, 친족에 대한 선처, 비복들에게 은혜로움 등의 내용은 모두 행록의 말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었고, 제사에 대해서는 선존고의 제사에 정성을 다했다는 언급만 나타날 뿐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화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언급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곱의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을 때, (부인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장부께서 어린 나이로 과거에 이름이 오르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③ 그 검소하고 평안함(儉約恬靜)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④아아! 이것이 정보의 어머니됨이도다! 정보가 밤낮으로 『대학』과 가례서 등을 공부하며 과거에 뜻을 두지 않은 것은 아마도 부인의 뜻을 이은 것이리라.22)

먼저 박윤원은 화려한 복장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홀로 낡은 옷을 입은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①), 이어서 남편의 이른 과거합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면모를 제시하였다(②). 그리고 이 두 일화에서 “검약염정(儉約恬靜)”한 연안 이씨의 면모를 확인하였다(③). 이어 “검약염정”한 모습이 바로 정보 어머니 덕성의 핵심이라고 탄식하고, 이어서 김종선이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침잠하는 면모가 어머니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④).23)

박윤원이 의유당의 행록에서 주목한 것은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는, 곧은 내면을 지닌 연안 이씨의 모습이었다. 낡은 의복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과거를 통한 입신도 연연하지 않는,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연안 이씨를 주목한 것이다. 특히 과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연결된다. 박윤원은 평생을 과거와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매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귀가의 자제인 김종선이 자신을 따르며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는 면모를 기특하게 여겼고, 그러한 면모의 근원을 외물에 집착하지 않는 연안 이씨의 행적에서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박윤원이 주목한 이 부분은 행록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해당부분 행록의 내용을 보자.

샤치(奢侈)는 시속(時俗)의 저마다 즐기는 배오, 공명(功名)은 인(人)이 취(取)하는 배어늘 부인(夫人)의 늙은 덕(德)이 고인(古人)을 압두(壓頭)하느니라. 그

22) 夫人以連姻王室，嘗出入禁中，同人者皆服華美，夫人衣故衣，處其間而不以爲恥。參議公年十七，中進士，不色喜曰：“丈夫年少科名，非所急也。”其儉約恬靜如此。嗚呼！此其所以爲城甫母也歟！城甫日夜讀大學家禮書，不屑屑爲科舉業，蓋承夫人志也。

23) 이 부분은 앞서 애사의 첫 부분에서 김종선의 모습에서 어진 어머니의 존재를 추측했던 사실과 조응하는 부분이다.

가당(家長)이 십칠의 스마(司馬)를 마티니 쇼연(少年)의 즐거우미 극진(極盡)히 거
 늘 그 식외구(媳外舅) 남공(南公)²⁴으로 동방(同榜)의 초시(初試)히야 남공(南公)
 은 못히더라. 부인(夫人)이 돌 〽 차석(咄 〽 嗟惜)히야 “우리는 나히 접어시니 오히
 려 급(急)히디 아니히니 숙부(叔父)의 못히시미 천만(千萬) 애롭다.” 히디 그 말슴
 과 동지(動止) 진정(眞情)이 아니미 업더라.

더궤(大關) 드러가나 검박(儉朴)히야 목은 오시 투식(滌色)히야 늙아시디 늙의
 화미(華美)흔 거슬 불워히디 아니 히니 혹(或)이 무르디 “입궤(入關)흔 부녀(婦女)
 의 〽 복(衣服)이 다 화려(華麗)히디 군(君)의 거시 홀노 투식(滌色)더라 히니 궤연
 티 아니턴가?”부인이 정금(整衿)히여 곱오디 “물(物)이 혼(限)이 〽 시니 임의 냇
 초례(醮禮)적 존전(尊前)의 님던 오시 이시니 늙의 눈을 위히야 다시 당만히리
 오?” 히더라.

윗글에서 확인되듯이 과거 관련 일화와 입궤 시 일화의 순서가 애사(哀
 辭)와 다르다. 행록에서는 과거 관련 일화가 먼저 제시되었다. 사실 김기대
 의 사마시(司馬試) 합격은 1754년이며 효의왕후가 세손빈이 된 것은 1762
 년이기에, 행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박윤원은 애사를 작성
 하면서 이 일화의 순서를 바꾸었다. 동시에 박윤원은 과거 관련 일화의 내
 용도 조금 변개하였다. 의유당의 행록에서는 연안 이씨의 남편의 급제를
 즐거워하기보다 시외숙²⁵의 낙방을 아쉬워하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남편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으므로 나이가 훨씬 많은, 집안의 어른이 먼저
 급제하기를 바라는, 사려 깊은 면모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윤
 원은 그 일화에서 시외숙과 관련된 부분을 생략하였다. 그에 따라 어린 나
 이에 급제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른 급제를 염려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곧 과거를 통한 현실적 출세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연
 안 이씨의 인물됨이 부조되고 있는 것이다.

궁궐에서의 일화의 순서를 바꾼 것도 이러한 변개와 연결된다. 행록의
 궁궐 일화는 연안 이씨의 검소하고, 절약하는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색이
 바랬어도 결혼할 때 입은 비단 옷이 있으니 굳이 화려한 의복을 다시 장만
 할 필요가 없다는 언급은 사치하지 않고 절약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하

24) 南公 : 의유당의 오빠인 南紀雲(1716~1778).

25) 의유당의 오빠인 南紀溟. 당시 39세였음.

지만 박윤원은 단지 낡은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모습만 기술함으로써 절약의 덕목을 드러내기보다는 화려한 옷에 집착하지 않는, 곧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면모가 부각되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벼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부각되는 과거의 일화를 배치함으로써 궁궐의 일화가 단순히 절약, 검소를 넘어서 가난함에 구애되지 않는, 곧 안빈(安貧)하는 의미로 이해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두 일화에 나타나는 연안 이씨의 덕목을 “검약염정(儉約恬靜)”이라고 정리하여 언급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염정(恬靜)²⁶⁾이라는 표현을 통해 세속적인 욕망이 없이 도의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윤원은 행록의 내용을 조금 조정하여 연안 이씨가 외물에 구애되지 않는 군자 같은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것을 박윤원이 행록을 왜곡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박윤원이 행록을 통해 읽어낸 연안 이씨의 모습을 보다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곧 박윤원이 의유당의 행록을 통해 읽어낸 연안 이씨의 모습을 부조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박윤원이 읽어낸 연안 이씨의 모습은 김종선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이다. 박윤원은 일찍 아버지를 여윈 부귀가의 자제임에도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매진하는 김종선을 높이 평가하였다. 박윤원이 파악한 연안 이씨의 면모는 역시 이러한 아들의 모습이 가능하도록 한 어머니 연안 이씨였다. 박윤원이 학문에만 전념하는 면모를 설명하기 위한 존재로서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은 연안 이씨의 면모가 애사의 핵심적 내용이 되도록 배치한 것도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매진하고 있는 제자 김종선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에 서술되는 부인의 행적에 대한 박윤원의 평가 역시 김종선과의 관련에서 이루어진다. 박윤원은 자식 교육에 엄정했던 부인을 높이 평가하고, 나아가 부인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학문 성취에 노력하도록 권면한다. 곧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는 제자 김종선의 모습의 근원으로서, 외물에 구애되지 않은 연안 이씨의 행적을 주

26) 恬靜은 일반적으로 ‘恬靜無欲’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물에 동요되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가리킨다.

목하였고, 그에 따라 김종선에게 더욱 더 학문에 매진하기를 권면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는 김종선의 어머니인 면모를 중시한 점은 작품을 정리한 사(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아! 부인이여! 아름다운 아들이 두셨도다.
 아들만을 대하며 늙으셨으니 홀어머니의 슬픔이도다.
 “아버지가 없으니 스승이 아니면 누가 가르치겠니?
 스승에게 나아가 밤낮으로 노력하여라.”
 아들이 어머니 가르침 받들어 법도에 어긋남이 없도다.
 닦아야 하는 것은 의리(義理)일 뿐이니 높은 벼슬 무엇 하겠나?
 아들의 학문 바야흐로 성취되려 하지만 자신의 영광이라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 어찌하여 수(壽)를 누리지 못하여 자식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는가?27)

이는 사(辭)의 첫머리인데,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기를 가르친 어머니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다. 교육 외의 다른 덕목이 드러나지도 않고, 부귀와 공명 등 외물에 연연하지 않았던 모습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앞서 기술에서 부각한, 화려한 의복이나 과거 급제에 연연하지 않았던 군자 같은 면모 그 자체를 주목하지는 않은 것이다. 곧 외물에 구애되지 않는 군자적인 면모를 지닌 연안 이씨 그 자체를 현창하기보다는 군자적인 면모를 보이는 김종선의 어머니, 그러한 김종선이 되도록 가르친 어머니의 면모에 주목한 것이다.

박윤원은 의유당의 행록에 제시된 일화 속에서 연안 이씨의 군자적인 면모를 발견하였다. 절약, 검소, 친족 어른의 배려 등 세세한 節目을 잘 수행한 인물을 넘어서서 외물에 구애되지 않는 인물로 연안 이씨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연안 이씨의 덕성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덕성을 지닌 연안 이씨 그 자체를 빛나는 인물로 이해하기보다는 아들 김종선의 덕성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연안 이씨의 덕성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27) 嗚呼夫人兮，有一佳兒。待茲而老兮，柏舟之悲。謂兒無父兮，非博誰教？爾就爾博兮，罔懈夙宵。子奉母命兮，循規蹈矩。所修者義兮，軒駟何有？子學方茂兮，毋曰吾榮。母何不壽兮，不見子成。

4. 의유당의 또 다른 기록, <유사>

『의유당유고』에는 <숙부인이씨행록>과 함께 숙부인이씨의 <유스>도 실려 있다. 행록보다 원고지 1~2매 정도 더 긴 분량이므로, 분량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의유당은 <숙부인이씨행록>을 작성하고, 얼마 뒤에 다시 <유사>를 써서 김종선에게 보냈다.²⁸⁾ 이미 김종선의 부탁에 따라 행록을 작성하여 보냈음에도 또 다시 <유사>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사>의 첫머리에서 의유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딜부(姨姪婦) 연안니시(延安李氏)를 울고 시일(時日)이 임의 올드디 남은 슬프미 진(盡)티 못햐야 낙간(若干) 평일(平日)의 아는 바를 거두어 유스(遺事)의 체(體)를 의방(依倣)햐야 곶오디 (...)

돌아간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슬픔은 여전했고, 이전의 행록에 다하지 못한 말을 유사의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집에 실린 행록은 삶의 행적을 시간 순으로 통관하여 기술하지만, 유사는 특별한 제약 없이 몇 가지 사례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의유당이 유사의 문체를 의방하여 기술한다는 것은 보다 주관적인 심사를 담은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행록>이 주로 친정 쪽의 전문을 바탕으로 기술된 것에 비하여 <유사>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관적인 심정을 보다 많이 노출하면서 기술된 점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이 <유사>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기(知己)를 잃은 슬픔이다. 손아래 질부임에도 만나면 기뻐하고 그리워하여 보통의 숙질(叔姪)과는 달랐던, 지기(知己)와 같았던 존재의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의유당은 “정의(情誼)가 두터워 옛날의 이른바 지기(知己)”와 같은 사이였다고 하였고²⁹⁾, 이제 “누구와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누구와 지기를 허락

28) 행록과 유사는 그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 행록은 1785년 6월에 썼다고 하였고, 유사는 1785년 하순에 썼다 하였고, 행록은 김종선의 청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였고, 유사는 김종선에게 보낸다고만 하였다. 또한 박윤원의 애사에 유사의 일화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에 박윤원은 이 유사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로 보건대, 김종선의 청으로 행록을 지어 보낸 후 뒤이어 유사를 지어 보낸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느냐”고 그녀의 죽음을 탄식하기도 하였다.³⁰⁾ 질부 이전에 지기였던 것이다.

질부를 향해 의유당이 지기라고 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안 이씨의 뛰어난 인품 때문이었다. 의유당은 질부의 “단정하고 엄숙한 덕과 효성스런 행실을 사랑하고 감복하여 항상 자신보다 뛰어난 벗[勝友]으로”³¹⁾ 여겼다고 하였다. 질부에 대해 승우(勝友)라고 표현한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감정적 유대도 강하였다. 감정적 유대는 여부인이 돌아가시기 전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쌓였으며, 여부인 기세 후 자주 만날 수는 없었어도 감정적 유대는 지속되었다. 드문 만남 가운데서도 서로를 그리워하였고 만나면 매우 기뻐하였던 것이다.³²⁾ 게다가 의유당은 여섯 명의 딸을 모두 앞세웠다. 이런 의유당에 대해 연안 이씨는 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하였고, 의유당 역시 딸처럼 대하였다.³³⁾ 서로 간의 친밀함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품에 대한 감동과 서로를 이해하는 감정적 유대가 있었기에 의유당은 질부를 지기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품에 대한 감동과 감정적 유대, 곧 지기와 같았던 모습은 일화를 통해 제시된다. 지기와 같았던 모습이 제시되기에 이 일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첫 번째 제시되는 일화를 살펴보자. 의유당은 은근히 연안 이씨의 살림살이에서 사치가 심함을 나무랐다.³⁴⁾ 연안 이씨는 자신은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하여 사치를 모르고, 다만 아직 며느리

29) “그 정의(情誼) 도타오미 엇디 네 니론 바 지기(知己)여서 다르리오!”

30) “이제 뼈 후(後)의 놀음 향(向)하야 툇곡(喪曲)의 설화(說話)를 흐며 또 놀로 더브러 지기(知己)를 허(許)허리오?”

31) 부인(夫人)의 단숙(端肅)흔 덕(德)과 효순(孝順)흔 형실(行實)을 니 일죽 친인(親愛)하고 심복(心服)하야 홍상(恒常) 승우(勝友)로써 보고(…)

32) 그 후(後) 만나미 점” 드르디 만나면 문득 혼열(欣悅)하야 아연한 정(情)이 실노 심상(尋常)흔 숙달(叔姪)의 가(可)히 니를 배 아닌디라.

33) 니 창천(蒼天)의 양화(殃禍)를 바다 여섯 아들과 여섯 딸을 나흐디 다만 혼 아들을 기르니 부인(夫人)이 니 궁(窮)흔 불상이 너겨 날 보기를 어미 ㄱ티 흐매 니 부인(夫人) 보기를 쫓 ㄱ티 흐디니

34) 일석(一席)의 부인(夫人)으로 더브러 조용이 말흐디니 니 부인(夫人)을 경계(警戒)하야 굴오디 “그디 즈품(資稟)이 붉고 아름다와 날ㄱ티 무스흔 재(者) 맞출 배 아니로디 다만 보니 그 집이 사치(奢侈) 너모 과(過)하야 평일(平日)의 괴망(期望)과 다룬디라. 아디 못게라. 그 과연(果然) 모르고 그리흐나 알고도 짐짓 행(行)흐느냐?”

로서 집안 살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다, 큰 집의 옛 풍속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사치스런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³⁵⁾ 이후 의유당은 검소한 남편의 옷차림을 통해 연안 이씨의 본 모습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아들을 매우 검소하게 키우는 모습에 더욱 감명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의유당과 연안 이씨가 주고받는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이어서 의유당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 개인적인 경험을 기술하고, 그 가운데 느낀 주관적인 심사를 표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화에서 연안 이씨의 시대인 청풍 김문(淸風金門)의 사치가 드러나기도 한다. 의유당의 사치를 경계하는 말에 대하여 연안 이씨가 “(시택의) 옛 규모를 따르고, 대가(大家)의 옛 풍속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었다는 언급이나 시집오기 전 혼수를 받았을 때 혼수의 사치함 때문에 친정아버지가 크게 탄식하였다는 언급³⁶⁾ 등은 모두 연안 이씨가 시집오기 전 시택의 살림살이가 매우 사치스러웠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유당은 연안 이씨의 검약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았다. 연안 이씨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거리낌 없이 표현한 것이다. 오직 연안 이씨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심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또 다른 일화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사실을 전한다. 특히 이 일화는 연안 이씨의 행적보다는 자신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연안 이씨는 딸의 시아버지 첫 생신 음식을 잘 차려 보내려고 의유당에게 도움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마침 조정에 역옥(逆獄)이 있어 의유당이 사가(查家)에 성찬(盛饌)을 보내는 일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연안 이씨는 의유당에게 사과하고 소박하게 음식 장만하여 보냈다는 것이다. 물론 딸을 위한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누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 이씨의 덕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잘

35) “이는 오히려 숙모(叔母) 모르시는 배로다. 딸뻘(姪婦) 빈한(貧寒)한 집의 생당(生長)해야 복식(服飾)의 화려(華麗)함을 눈의 보다 못하야시니 엇디 몸으로 흥허리오마는 자연(自然) 법스(凡事)를 자유(自由)티 못하야 넷 규모(規模)를 준행(準行)하니 큰 집 넷 풍속(風俗)을 일도(一朝)의 변(變)티 못하나 밋음인 즉 실(實)노 일호(一毫)도 사치(奢侈)함미 업노라.”

36) “경오(庚午) 초하(初夏)의 지동으로서 딸뻘(姪婦)의 대례(大禮)에 님을 오솔 다 2초아오니 의복(衣服)이 과사(過奢)홀 분 아니라 함(函)과 궤(櫃)를 다 안호로 비단(緋緞)으로 불나시니 가진(家親)이 보고 놀라 밥을 폐(廢)호고 차탄(嗟嘆)호다.”

따르고 공경했던 연안 이씨의 면모가 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곧 의유당은 이모인 자신을 공경하고 따랐던 연안 이씨의 모습을 전한 것이다. 이는 앞서의 일화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기록한 것으로, 연안 이씨의 덕성 그 자체를 현창하기보다는 자신을 공경하고 따랐던 연안 이씨와의 관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유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한 마지막 만남에서 두드러진다. 연안 이씨는 남편을 여읜 후 과부여서 출입을 삼갔기에 의유당이 이따금 찾아가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만나면 기뻐하는 모습이 만면에 나타났고 공경하는 정성이 말 속에 드러났다. 특히 죽기 얼마 전 연안 이씨는 간절하게 의유당이 찾아주기를 바랐다. 이에 의유당이 방문하여 보니 병세가 깊어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만남일 줄은 몰랐다.

너 그 도라오기의 미처 부인(夫人)이 당(堂)의 너려 보닐시 그 당결(悵缺)흔 뜻을 일카라 전(前)과 즈별(自別)호고 내 쯤 고련(顧戀)호는 회퇴(懷抱) 네로 더브러 즈뫼 다러드니 슬프다. 문득 천고영결(千古永訣)이 되어 스월(四月) 십구일(十九日)의 부인(夫人)이 속광(屬纊)흔 기별(寄別)을 드러니(…)

의유당이 언급하는 연안 이씨와의 마지막 모습이다. 의유당이 연안 이씨를 만나고 헤어질 때, 연안 이씨는 마지막 만남임을 알았는지 아픈 몸으로 당(堂) 아래까지 내려와 특별히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하였고, 의유당도 그 모습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되었다는 것이다. 서로 마음으로 인정했기에 마지막까지 이별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의유당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장면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연안 이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로지 의유당에게 기억되는, 잊힐 수 없는 마지막 장면일 뿐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유사>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심사를 담고 있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승우(勝友)이며 딸과 같아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했던 질부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심사를 풀어내었던 것이다. 의유당이

<유사>를 별도로 작성하여 김종선에게 보낸 이유는 이 점 때문이었다.

의유당은 이미 보낸 행록에서, 행록은 만인에게 기억되기 위한 글이기에, 연안 이씨의 덕성을 규범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의유당에게는 그것으로 풀어낼 수 없는, 남은 슬픔이 있었다. 자신에게 기억되는, 보편적 도덕규범의 기록으로 해소되지 않는, 연안 이씨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의유당은 만인에게 기억되기 위한 행록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억된 연안 이씨의 모습을 담기 위해 <유사>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특히 시이모와 이질부로서, 규방의 여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 감동하고 의지했던 모습을 담았던 것이다. 비록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시댁의 웃어른으로 어려울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하였지만, 지기처럼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자신의 내밀한 기억을 가감 없이 표현했던 것이다. 의유당의 <유사>는 <행록>과 다른 여성의 여성에 대한 기록의 또 다른 층위를 보이는 것이다. 보편적 도덕물에 입각한 규범적 여성상으로 기록하려는 욕망 외에 여성들이 서로 인정하고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했던 존재를 기억하고 기록하려는 욕망이 존재하였고, 그것의 표현이 바로 의유당의 <유사>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 유대의 한 단면을 보이는 문학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성들이 제한된 삶 속에서 구축하려 했던 여성들의 '지기문화(知己文化)'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의유당의 <유사>의 여성문학적 가치라고 할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의유당이 그의 이질부인 연안 이씨에 대해서 작성한 <이질부 숙부인연안니시행록>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박윤원의 <숙부인연안이씨 애사> 및 의유당의 연안 이씨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유사>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들 자료는 이제까지 문집의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되던, 여성에 대한 여성의 한글 행록과 그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대부의 추도문자의 실례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이며, 동시에 한글 행록 외에 유사를 통해 여성의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층위의 기록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자료이다.

의유당의 <이딜부숙부인연안니시행록>은 아들의 요청 때문이기는 하지만, 독특하게 시이모가 작성한 이질부의 행록이다. 시이모인 의유당은 문학 적 능력이 뛰어났고, 이질부와 지기(知己)라고 칭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으며, 겹으로 얽힌 친인척 관계였기에 행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 공간이 다른 시이모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연안 이씨의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의유당은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덕성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일화를 선택하고, 단락 구성과 서술 순서를 고려하여 지극한 효성을 지녔으며, 부귀와 공명에 연연해 않으며, 과부이지만 외아들에게 엄격했던 이상적이고 규범적 여인으로 연안 이씨를 형상화하였다. 그런데 이는 부녀자에게 요구되는 규범의 맥락에서 삶을 정리한 것으로서 여성에 의한 여성의 기록이 지니는 독특한 면모가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행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박윤원의 <연안이씨숙부인애사>에서는 행록의 일화를 조금 변모시켰다. 두 가지 일화의 순서와 내용의 변화를 통해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여중군자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원래의 일화에서 강조된 어른에 대한 배려, 검소와 절약 등의 도덕적 절목을 잘 실천한 인물로부터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마음을 지닌 군자적 이미지를 읽어내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중군자인 연안 이씨 그 자체를 현창한 것은 아니었다. 부귀가의 자제임에도 과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학문연구에만 매진하는 아들 김종선의 행위의 근원으로서 연안 이씨를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학문연구에 매진하기를 권면하기 위해 사용된 인물 형상이었다. 곧 교자(敎子)의 측면에서 발견된 여중군자의 형상이었던 것이다.

의유당은 연안 이씨를 기리기 위해 행록 외에 <유사>도 작성하였다. 앞서 작성한 행록은 모두에게 기억되기 위하여 규범적인 모습을 형상화하였지만, <유사>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억과 심사를 기록하였다. 시이모와 질부라는 조금은 어려운 사이였지만, 지기(知己)처럼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자신의 내밀한 기억을 가감 없이 표현했던 것이다. 이 <유사>는 <행록>과 다른, 여성의 여성에 대한 기록의 또 다른 층위를 보이는 것으로, 여성들 간의 감정적 유대와 지

기(知己) 욕망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여성인 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여성의 한글 기록과 그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사대부 남성의 한문 추도문자의 거리 및 여성 나름의 내밀한 유대와 욕망을 담고 있는 망자에 대한 또 다른 여성의 한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 가지 사례로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 확인되는 유일한 사례이기에 단순한 한 가지 사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의유당유고』 (필자 소장)

이덕수(李德壽), 『서당사재(西堂私載)』 (『한국문집총간』 186집)

박윤원(朴胤源), 『근재집(近齋集)』 (『한국문집총간』 250집)

박종여(朴宗興), 『냉천유고(冷泉遺稿)』 (『한국문집총간』 속109집)

『청풍김씨세보(淸風金氏世譜)』(丁編下四)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령남씨족보(宜寧南氏族譜) 충간공파(忠簡公派)』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논저>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8~25면.

류준경, 『『의유당유고』의 형성배경과 문학사적 가치』, 『한국한문학연구』61, 한국한문학회, 2016, 82~88면.

정하영, 『숙종 계비 인원왕후의 한글 기록 : <선군유스>와 <선비유스>』, 『한국문화연구』1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277~315면.

The Difference and Layer among Description
for Women by Man and Woman

Ryu, Jun-kyung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Yizilbu-Sukbuin-Yeonan-Yisi-Hangnok* 이딜부숙부인연안나시행록 and *Yusa* 유사 written by Madam Euiyudang Nam in Korean and *Yeonan-Yisi-Sukbuin-Aesa* 延安李氏淑夫人哀辭 written by Park Yun-won 朴胤源 in classical Chinese on the those Euiyudang's writings. And these are the very first case that have been found as women's chronical in Korean written by women and the memorial writing by nobleman in classical Chinese on those writings at the same time.

Yeonan-Yisi 延安李氏 was embodied as a well-conducted woman in *Yizilbu-Sukbuin-Yeonan-Yisi-Hangnok* 이딜부숙부인연안나시행록 but she was embodied as a ideal woman of virtue in *Yeonan-Yisi-Sukbuin-Aesa* 延安李氏淑夫人哀辭. On the other hand Euiyudang expressed the very personal and subjective feelings and memories in *Yusa* 유사.

keywords: Madam Euiyudang Nam, women's literature, *EuiyudangYugo*, women's chronical in Korean written by women, Park Yun-won.

접수일자: 2016. 3. 31.
심사기간: 2016. 3. 31.~2016. 5. 10.
게재결정: 2016. 5. 10.

<이달부 숙부인 니시행녹(姨姪婦 淑夫人 李氏行錄)>³⁷⁾

부인(夫人)이 십삼(十三)의³⁸⁾ 김시(金氏)의 드러오니 그 선존고(先尊姑) 남부인(南夫人)³⁹⁾이 기세(棄世)호선디 오년(五年)이라. 밋 부인(夫人)이 입승김문(入承金門)호매 의용(儀容)이 단숙(端淑)호야 용모(容貌)로브터 행동(行動)의 유법(有法)호미 더브러 꺾호 니 업는디라. 존고(尊姑) 홍부인(洪夫人)⁴⁰⁾을 섬기오매 미처 친고(親姑)를 못 섬기운 혼으로 지극호 효성(孝誠)이 극진(極盡)호니 홍부인(洪夫人)이 또 고인(故人)의 남은 덕(德)이 목강(穆姜)⁴¹⁾의 넘으신디라. 고식(姑息)의 흡연(洽然)호미 일가(一家) 제족(諸族)과 넌니친구지간(隣里親舊之間)에 착호 말이 먼니 던(傳)호디라.

석외조모(媯外祖母) 녀부인(呂夫人)⁴²⁾이 남부인(南夫人)의 참경(慘景)⁴³⁾을 격고신 후(後) 이통(哀痛)호시미 과호시다가 신부(新婦)를 어드신 후 즈로 즈하동(紫霞洞) 외택(外宅)의 노친(老親)을 시호(侍護)하매 보드랍고 한가(閑暇)롭고 완전(完全)호고 민첩(敏捷)호고 총혜(聰慧)호야 쇼년(少年)의 희학(戲謔)은 저마다 즐기는 배오, 호변(好辯)은 저마다 힘쓰고져 호디 홀노 부인(夫人)은 이런 고디 유의(留意)티 아냐 어룬을 피시매 동 "촉" (洞 "燭") 호야 가득호 거슬 맞든 듯호고 좌우(左右)로서 현화(喧譁)호고 희학(戲謔)호여도 부인(夫人)은 좌석(坐席)이 단공(端恭)호고 시탐(視瞻)이 조용(從容)호야 절노 화(和)호 기운(氣韻)이 사름의게 험습(浹洽)호 듯호디 슈연(雖然)이나 조금도 교궁(驕矜)호기의 먼디라. 조심(操心)호고 두려호는 거동(舉動)이 안식(顏色)의 넘치디라. 존고(尊姑) 괴스(忌祀)를 당(當)호니 나 어룬 몸으로써 조용(從容)이 조두(俎豆)를 간검(看檢)호고 밋 제스(祭)를 남

37) 이달부 숙부인 니시(姨姪婦淑夫人李氏): 의유당의 이질부 延安李氏(1738~1785). 金基大(1738~1777)의 아내.

38) 부인(夫人)이 십삼(十三) : 연안 이씨 13세. 1750년.

39) 남부인(南夫人, 1721~1746) : 의유당의 언니. 金時默의 初配.

40) 홍부인(1729~1791) : 김시목의 繼配. 洪尙彦의 따님.

41) 목강(穆姜) :晉나라 程文矩의 아내 이씨. 穆姜은 李氏의 字. 후처로 전처 자식을 잘 돌보았음.

42) 여부인(1692~1755) : 의유당의 친정어머니. 呂必容(1655~1729)의 따님.

43) 남부인의 참경 : 의유당 언니(김시목의 처)가 1746년 죽은 것을 말함.

(臨)흐매 이통(哀痛)흐미 넘써 흥 우흠⁴⁴⁾ 물을 늦치 부은 듯흐더라. 녀부인(呂夫人)이 보시고 던(傳)흐시더라.

사치(奢侈)는 시속(時俗)의 저마다 즐기는 배오, 공명(功名)은 인(人)이 취(取)흐는 배어날 부인(夫人)의 높흔 덕(德)이 고인(古人)을 압두(壓頭)흐는디라. 그 가당(家長)이 십칠의 스마(司馬)를 마티니⁴⁵⁾ 쇼연(少年)의 즐거우미 극진(極盡)흐거늘 그 식외구(媿外舅) 남공(南公)⁴⁶⁾으로 동방(同榜)의 초시(初試)흐야 남공(南公)은 못흐디라. 부인(夫人)이 돌(嗚)차석(嗟惜)흐야

“우리는 나히 접어시니 오히려 급(急)흐디 아니흐니 숙부(叔父)의 못흐시미 천만(千萬) 애둡다.”

흐디 그 말슴과 동지(動止) 진정(眞情)이 아니미 업더라.

더궤(大關) 드러가나⁴⁷⁾ 검박(儉朴)흐야 목은 오시 투식(淪色)흐야 높아시디 님의 화미(華糜)흔 거슬 불위흐디 아니 하니 혹(或)이 무르디

“입궤(入闕)흔 부녀(婦女)의 〳복(衣服)이 다 화려(華麗)흐디 군(君)의 거시 홀노 투식(淪色)더라 하니 꺾연티 아니턴가?”

부인이 정금(整衿)흐여 곱오디

“물(物)이 흥(限)이 〳시니 임의 넷 초례(醮禮)적 존전(尊前)의 님던 오시 이시니 님의 눈을 위흐야 다시 당만흐리오?”

흐더라.

이 동안은 큰 세간(世間)의 일신(一身)의 스뭇춘 병(病)이 골슈(骨髓)의 드러시디 병(病) 들기로써 도리(道理)를 폐(廢)티 아나 감지(甘旨)를 몸소 간검(看檢)흐야 흥 썬 게어르디 아니코 존고(尊姑)를 미쳐 섬기디 못흔 줄 술들흔 유흔(遺恨)이 되여 남은 효성(孝誠)을 남공(南公)⁴⁸⁾과 녀부인(呂夫人)과 지극히 흐다가 하세(下世)흐신 후(後) 튜모(追慕) 이통(哀痛)흐야 괴신(忌辰)을 당(當)흔즉 조제(助祭)를 후(厚)히 호고 몸소 참스(參祀)흐야 ㄹ

44) 우흠 : 움쿰.

45) 스마(司馬)를 마티니 : 김기대는 1754년에 사마시에 급제하였음.

46) 남공(南公) : 의유당의 오빠인 南紀雲(1716~1778).

47) 더궤(大關) 드러가나 : 연안 이씨의 시누이가 정조비인 효의왕후(1753~1821)이기에 궁궐을 출입하였음. 1761년 간택, 1762년 세손빈으로 책봉되었으므로, 1762년 이후의 일임.

48) 남공 : 시외조부인 南直寬(1692~1761). 의유당의 아버지.

독한 정성(精誠)이 늦 우히 넘씨더니, 슬프다! 그 가당(家長) 참의공(參議公)⁴⁹이 도라간 후(後) 인(因)하여 인스(人事)를 폐(廢)하여 다시 외가(外家)의 괴신(忌辰)을 넘티 못하나 제(祭)를 당(當)하여 제슈(祭需)를 보니며 추연(愴然)이 슬허하미 혼글궂더라.

아들 하나히 잇고 쫘 세히 이시니 즈식(子媳)들 교훈(教訓)하기를 스랑하기로 폐(廢)티 아니 하고 쫘 구차(句且)히 즈식(子媳)의 허물을 ㄱ리와 늡이 알가 하는 일이 업서 엄(嚴)히 계탁(戒飭)하고 널니 ㄱ르티니 고인(古人)의 풍(風)이 잇고 그 아들이 다만 하나히니 스랑하고 귀뵙(貴重)하미 턴눈(天倫) 맞기 타별(他別)홀 거시로디 끈허 밧스싱[外傳]의게 보니고 집의 용납(容納)디 아냐 흑문(學問)과 도리(道理)를 비호기로뵙 경계(警戒)하여 스랑하는 빗출 나타너디 아니하니 아들이 능히 봉승(奉承)하여 거의 아릅다오매 니르니 엇디 괴특디 아니리오.

너비 고금(古今)을 통(通)하고 경스(經史)를 박남(博覽)하디 아는 거슬 늡이 모르게 하고 쫘 부창되이 늡이 알게 아니하여 몸을 느초고 숨을 마서 아조 아릅이 업는 듯 시브더라.

그 석외이모(媿外姨母) 신시부(申氏婦)⁵⁰ 스랑하고 심복(心服)하미 흡연(洽然)하여 서러 말이 "시매 다 혼즉 부인(夫人)이 일"히 거두어 므옴의 답아 즐겨하니 남시(南氏) 또한 스랑하는 정분(情分)이 희한하디라.

부인(夫人)의 아들이⁵¹ 일즉 남시(南氏)의게 부인(夫人)의 덕(德)을 녀 거메오고져 청(請)하니 남시(南氏) 세상(世上) 창상(滄桑)⁵²과 역니(逆理)의 통(痛)을 ㄱ초 격고 부인(夫人)으로 더브러 모히미 드므니 그 긴 거슬 싱각고져 혼즉 문(文)이 단(短)하고 의시(意思) 궁(窮)하여 부인(夫人)의 평일(平日) 아릅다오를 잘 괴록(記錄)디 못하니 가(可)히 앓갑도다. 을스(乙巳)⁵³ 스월(四月) 십구일(十九日)노뵙 하세(下世)하니 오호(嗚呼)! 익지(哀哉)라!

부인(夫人)의 착하고 늡흔 형실이 부녀(婦女)의 가(可)히 업섬죽 혼 일은

49) 참의공(參議公) : 연안 이씨의 남편인 金基大(1738~1777). 工曹參議를 역임하였음.

50) 신시부(申氏婦) : 의유당 남씨. 평산 신씨 가문에 시집 갔음.

51) 부인(夫人)의 아들 : 金宗善(1766~1810)

52) 창상(滄桑) : 桑田碧海

53) 을스(乙巳) : 1785년.

형혀 형(行)히미 업고 이섬죽 혼 형스(行事)는 형혀도 아니 형(行)히미 업서 시례가(詩禮家)의 성장(生長)히야 고등(高重)흔 형덕(行德)이 므스 거시진(盡)티 못히리오마는 창천(蒼天)이 그 무지(無知)히시도다.

참의공(參議公)이 몬져 도라가고 놓고 착하고 유한(幽閑)하고 유법(有法)하고 괴이(奇異)흔 성도(誠道)로써 그 복 밧으미 엇디 그리 박(薄)히뇨. 쏘이 돌히 계유 성가(成家)하고 아들의 즈식(子息) 나흐를 미쳐 못보고 성혼(成婚)티 못흔 쏘이 〃 시니⁵⁴ 텃디간(天地間) 특출(特出)흔 효행(孝行)으로 더부인(大夫人)의 막디(莫大)흔 불효(不孝)를 하고⁵⁵ 텃눈(天倫)의 즈별(自別)흔 자녀(子女)를 막연(漠然)이 버리고 도라가 더부인(大夫人)은 듀야(晝夜) 잇통불승(哀痛不勝)히여 거의 병환(病患)이 나시게 히엇고 자녀(子女)의 호벽이통(號擗哀痛)은 궁텃극디(窮天極地)하고 니외종족(內外宗族)이 차석(嗟惜)히여 아니 슬허히리 업고 비복(婢僕)은 여상즈모(如喪慈母)히니 부인(夫人)의 덕(德)을 이에 가(可)히 알니로다.

니외종족(內外宗族)의 허다구제(許多救濟)와 조용이 돌보는 아름다운 성덕(盛德)은 이로 다 기록(記錄)기 어려오디 이는 부인(夫人)의 덕(德)의 오히려 적은디라 기록(記錄)디 아니코 구고존당(舅姑尊堂)의 아름다운 형적(行蹟)이 만흐련마는 집이 쓰고⁵⁶ 모히미 드물고 경향(京鄕)의 눈호여 든니 〃 즈시 알 길히 업서 디강을 기록(記錄)히여시디 만히 빠딘 거슬 즈시 모르기 다 히디 못히니 가탄가석(可嘆可惜)이로다.

을스(乙巳)⁵⁷ 녹월(六月)에 부이모(夫姨母) 남시(南氏)는 짓노라.

54) 성혼(成婚)티 못흔 쏘 : 딸 셋 중 막내를 말함. 뒤에 洪稷謨의 처가 됨.

55) 더부인(大夫人)의 막디(莫大)흔 불효(不孝)를 하고 : 대부인은 김시목의 후처인 남양 홍씨(1729~1791)를 말함. 효의왕후의 생모로 연안 이씨는 남양 홍씨보다 6년 일찍 棄世하였음.

56) 쓰고 : 다르고. 기본형은 '쏟다'.

57) 을스(乙巳) : 1785년

<유스(遺事)>

부이모(夫姨母) 신시부(申氏婦)는 이딜부(姨姪婦) 연안니시(延安李氏)를 울고 시일(時日)이 임의 올므디 남은 슬프미 진(盡)티 못흐야 낙간(若干) 평일(平日)의 아는 바를 거두어 유스(遺事)의 체(體)를 의방(依倣)흐야 곁 오디

오회(嗚呼)라. 부인(夫人)이 덕문(德門)의 성장(生長)흐고 시례(詩禮)의 습속(習俗)흐야 나히 계유 십삼의 김시(金氏)의 드러오니 김시(金氏) 겨레 크고 문회(門戶) 성(盛)흐야 처신(處身)흐기 어려오디 부인(夫人)이 묘년약질(妙年弱質)노 능(能)히 승상접하(承上接下)흐니 부당(夫黨)⁵⁸⁾이 다 그 맛당흐를 일크리니 그 유한정영(幽閑貞靜)흐 덕(德)이 어려서브터 넷 숙녀(淑女)의 풍(風)이 잇더라.

선비(先妣) 녀부인(呂夫人)이 오형(吾兄)을 곡(哭)흐시므로 거의 상명(喪命)의 니러러 겨시더니 밋 딜부(姪婦)를 어드시매 흡연(洽然)이 비회(悲懷)를 위로(慰勞)흐야 즈로 즈하동(紫霞洞) 본집의 마자 일위시고⁵⁹⁾ 가면 문득 여러 날 머므르실시 니 귀령(歸寧)흐 썩에 시러곰 부인(夫人)으로 더브러 조용이 모히는 썩 만흔디라. 니 지식(知識)이 천단(淺短)흐야 비록 사름 알기의 브족(不足)흐나 부인(夫人)의 단숙(端肅)흐 덕(德)과 효순(孝順)흐 형실(行實)을 니 일즉 친의(親愛)흐고 심복(心服)흐야 홍상(恒常) 승우(勝友)로써 보고 부인(夫人)이 날 섬기미 또한 우리 형(兄) 섬기미여서 다르미 업스니 니 막음의 심(甚)히 감격(感激)흐고 깃머 심복(心服)으로써 탁(托)흔디라. 그러므로 일언반스(一言半辭)를 니게 괴이미⁶⁰⁾ 업서 일을 썩라 상확(相確)흐야⁶¹⁾ 조금도 애이흐미 업스니 그 정의(情誼) 도타오미 엇디 네 니른 바 지괴(知己)여서 다르리오.

히 계유(癸酉)⁶²⁾의 니 부즈(夫子)의 님읍(臨邑)⁶³⁾의 원흐를 썩라 갖더니

58) 부당(夫黨) : 남편과 동성동본인 겨레붙이.

59) 마자 일위시고 : 맞이하여 이르게 하시고, '일우다'는 '이르다(致)'의 의미.

60) 괴이미: 속임이. '괴이다'는 '속이다'의 의미.

61) 상확흐야 : 서로 의논하여 확실히 정하여.

62) 계유(癸酉) : 1753년.

기년(其年)의 선비(先妣) 하세(下世)하시니⁶⁴ 드디어 종턴지통(終天之痛)을 품고 밋 고택(古宅)의 도라오니 부인(夫人)이 즉시(即時)와 날을 보고 눈물을 뺄스며 슬허 목이 밋쳐 정(情)과 네(禮) 꺾고 지극(至極)하니 꺾히 잇는 사람이 다투 감동(感動)티 아니리오.

그 후(後) 만나미 점 " 드르디 만나면 문득 혼열(欣悅)하야 아연한 정(情)이 실노 심상(尋常)흔 숙달(叔姪)의 가(可)히 니를 배 아닌디라. 또 곱히 감격(感激)하야 흔 배이시니 문득 니 말하미 이신즉 부인(夫人)이 미양(每樣) 거두어 쓰기를 미쳐 못홀가 저허흔 고로 니 또한 말이 " 신즉 다 하야 숨기미 업디니라.

일석(一席)의 부인(夫人)으로 더브러 조용이 말하더니 니 부인(夫人)을 경계(警戒)하야 곱오디

"그디 즈품(資稟)이 붉고 아름다와 날그티 무스흔 재(者) 밋출 배 아니로디 다만 보니 그 집이 사치(奢侈) 너모 과(過)하야 평일(平日)의 기망(期望)과 다른디라. 아디 못게라. 그 과연(果然) 모르고 그러하냐 알고도 짐짓 행(行)하느냐?"

부인(夫人)이 사왈(謝曰)

"이는 오히려 숙모(叔母) 모르시는 배로다. 달부(姪婦) 빈한(貧寒)흔 집의 성장(生長)하야 복식(服飾)의 화려(華麗)흔 늘 눈의 보디 못하야시니 엇디 몸으로 헝하리오마는 자연(自然) 범스(凡事)를 자유(自由)티 못하야 넷 규모(規模)를 준행(準行)하니 큰 집 넷 풍속(風俗)을 일도(一朝)의 변(變)티 못하냐 믿음인 즉 실(實)노 일호(一毫)도 사치(奢侈)하미 업노라."

헝고 또 척연(惕然)하야 곱오디

"경오(庚午)⁶⁵ 초하(初夏)의 지동(齋洞)으로서 달부(姪婦)의 더례(大禮)에 납을 오솔 다 그초아 오니 의복(衣服)이 과사(過奢)홀 분 아니라 함(函)과 궤(櫃)를 다 안호로 비단(緋緞)으로 불나시니 가친(家親)이 보고 놀라 밥을 폐(廢)헝고 차탄(嗟嘆)하디"

헝거늘 드러더니 그 후(後)의 보니 부셔(婦婿)의 오시 검박(儉朴)하야 오

63) 니 부주(夫子)의 남읍(臨邑) : 남편인 신대손의 성주목사 부임을 말함.

64) 기년(其年)의 선비(先妣) 하세(下世)하시니 : 여부인의 죽음을 말함. 의령남씨 족보에는 을해년(1755년)으로 나옴.

65) 경오(庚午) : 1750년. 혼인한 해.

히려 과(過)호고 남녀혼가(男女婚嫁)의 사치(奢侈)호 오시 업스니 너 이에 더욱 전(前)말이 망녕(妄靈)되디 아니를 탄식(歎息)호앗노라.

부인(夫人)이 다만 혼 아들이⁶⁶⁾ ” 시니 그 귀(貴)호미 천금(千金)일 분 아니라 그 의식(衣食)이 혹(或) 상도(常度)의 디날디라도 사름이 반드시 허물터 아닐 거시로디 것춘 비와 추호 무명으로 웃으실 밍글고 추호 밥과 열은 반찬으로 그 주리를 메오고 소위(所謂) 듀단(紬緞)벗치는 호 오로도 몸의 붓디 아났더니 위연(喟然)이 김공(金公)의 쇼시(少時) 제 님던 명지오시 넷 상즈(箱子)의 이시를 보고 그 당단(長短)이 맛궤즈므로써⁶⁷⁾ 아히를 님히니 아히 깃거 곱오디

“명지(明緬) 오시 이러트시 도흔더 엇디 전일(前日)의 날을 님히디 아니호앗던고?”

호더라고 부인(夫人)이 날을 보고 던(傳)호고 웃거늘 너 김히 탄식(歎息)호야 곱오디

“부인(夫人)은 가히 인효공검(仁孝恭儉)이 호 몸의 모혔다 호리로다. 세상(世上)의 복(福) 앓기를 부인(夫人) 궤호니 님 이시리오.”

부인(夫人)의 당녀(長女) 뉴실(柳室)⁶⁸⁾의 존구(尊舅) 성일(生日)날 성찬(盛饌)을 장춧 베퍼 보너려 홀 시 날드려 도아 설(設)판호기를 청호였거늘 그 씨의 역육이 ” 서 친국(親鞠)호시는 거죄 잇는디라. 너 글을 깃터 칙(責)호야 곱오디

“그디 지혜(智慧) 타인(他人)과 다룬디라. 국가(國家)의 식불감(食不甘) 침불안(寢不安)호신 씨를 당(當)호야 성찬(盛饌)을 비설(排設)호야 사가(查家)의 보너미 일이 심히 호화(豪華)호디라. 엇디 국가(國家)로 더브러 휴척(休戚)⁶⁹⁾을 혼가지로 호는 의리(義理)오?”

부인(夫人)이 즉시 사과(謝過)호고 음식(飲食)을 감(減)호니 부인(夫人)이 너 말 쓰기를 이러트시 호더라. 그런 고(故)로 그(其) 둥(重)호미 더욱 곤절(懇切)호더니라.

오호(嗚呼) 석지(惜哉)라! 이제 뼈 후(後)의 늘을 향(向)호야 튕곡(衷曲)

66) 혼 아들 : 金宗善(1766~1801)을 말함.

67) 맛궤즈므로써 : 알맞음으로써, ‘맞궤다’는 알맞다는 뜻임.

68) 뉴실(柳室) : 柳謙에게 시집간 만딸.

69) 휴척(休戚) : 기쁨과 근심 걱정.

의 설화(說話)를 하며 또 놀로 더브러 지기(知己)를 허(許)허리오 니 창턴(蒼天)의 아화(殃禍)를 바다 여섯 아들과 여섯 딸을 나흐디 다만 혼 아들을 기르니⁷⁰⁾ 부인(夫人)이 니 궁(窮)허믈 불상이 녀겨 날 보기를 어미 7티 허매 니 부인(夫人) 보기를 쫘 7티 허더니 부인(夫人)이 주곡(晝哭)⁷¹⁾헌 후(後)로 출입을 끈흔 고(故)로 니 잇다감 군(君)의게 나아가 본즉 환열(歡悅)헌 괴색(氣色)이 면모(面貌)의 넘찌고 동 〃 축 〃 (洞 〃 燭 〃)헌 정성(精誠)이 식색(色辭)의 나타나더니 금년(今年) 삼월(三月)의 부인(夫人)이 곤청(懇請)허니 니 가 본즉 형식(形色)이 초고(焦枯)허야 스세(辭世)예 머디 아니믈 지자(智者)를 기드려 알배 아니로디 또 엇디 순삭지니(旬朔之內)예 니러나디 아니믈 알니오. 니 그 도라오기의 미쳐 부인(夫人)이 당(堂)의 너려 보닐식 그 탕결(悵缺)헌 쫘을 일크라 전(前)과 즈별(自別)허고 내 쫘 고련(顧戀)허는 회괴(懷抱)네로 더브러 즈뭇 다르더니 슬프다. 문득 천고영결(千古永訣)이 되어 스월(四月) 십구일(十九日)의 부인(夫人)이 속광(屬纊)헌 괴별(寄別)을 드르니 차호석지(嗟呼惜哉)라. 니 심히 앓기는 밧자⁷²⁾는 혼갓정(情)일 분 아니라 부인(夫人)의 현덕(賢德)으로뵈 품명(稟命)허미 태박(太薄)허야 일즉 쇼턴(所天)⁷³⁾을 여회고 문득 효조(孝子)의 식양(色養)⁷⁴⁾허믈 어기고 쫘 성손(姓孫)⁷⁵⁾을 못보고 유녀(幼女)의 성인(成人)허믈 미쳐 못보고 엄연(奄然)이 기리 가니 엇디 텃되(天道) 어디니 돕디 아니미 이러 툃호노.

방인(傍人)으로 하여금 보면 내 말을 혹(或) 과(過)타 허려니와 부인(夫人)의 평일(平日) 놓흔 행실(行實)을 내 아니면 뉘 능(能)히 말허리오. 지기(知己)의 상부(相符)허믈 감창(感愴)허고 덕행(德行)의 미몰(埋沒)허믈 줌아 못허야 낙간(若干) 일을 빼 외종손(外從孫)의게 붓터기니와 년년(年來)예 정신(精神)이 모손(耗損)허야 능히 다 싱각디 못허야 쫘누(闕漏)허미 만

70) 여섯 아들과 ~ 기르니 : 평산신씨 족보에는 申綏(1745~1780)와 申綏(1761~1802) 두 아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아들을 제외한 열 명의 자녀는 요절한 것으로 보임. 이 글을 작성할 때에는 申綏만이 살아 있었음.

71) 주곡(晝哭) : 남편을 여읜. 1777년 남편 김기대가 棄世함.

72) 밧자 : 까닭. 이유.

73) 쇼턴(所天) : 남편.

74) 식양(色養) : 부모님 봉양. 부모님의 안색을 맞춰서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함.

75) 성손(姓孫) : 후손. 여기서는 손자를 말함.

호니 이는 그 아름다운 덕(德)의 만분지일(萬分之一)이라. 말이 엇디 과호리오.

을스(乙巳) 늑월(六月) 하완(下浣)에 부이모(夫姨母) 의령남시(宜寧南氏)는 서(書)호노라.

